

 한국-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각서 체결 2004-07-29			
* 담당부서	정보통신협력국	* 담당자	한용석 750-1452 (yshan@mic.go.kr)
위치	HOME > 알람넷 > 보도 및 언론해명		

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본격 진출할 전망이다.

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오전 시암술 무아리프(Syamsul Mu`arif)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과 IT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간 IT협력 증진방안에 논의했다.

이 날 회담에서 무아리프 장관은 진 장관에게 인도네시아 바탐시에 시범 실시하는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.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공감을 표하고 이번 바탐시의 전자정부 지원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두나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.

이어 양국 장관은 두 나라간 IT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험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.

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명이 넘고 IT시장규모가 연평균 10.2% 성장해 2007년 19억달러로 전망되는 등 정보통신분야의 거대 잠재시장으로 국가정보기술체계(NITF)라는 정보통신 발전계획 수립 및 사이버시티(Cyber-City) 프로젝트 발표 등 정보통신분야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간다.

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민원혁신사업(G4C), 통합전자조달(G2B) 등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본격적인 안방민원 시대를 맞이했고 같은해 UN이 평가한 전자정부 지수에서 190개 회원국 중 15위로 평가 받아 그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.

이번 양국간 전자정부 협력에 관한 각서 체결로 한국이 현지 전자정부 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는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.